

상반기 전북수출 43억4601만 달러

약 10년만에 최고치... 동제품, 최고 수출 실적 기록 6월 수출, 2년여만에 하락 전환... 中 수출 전망 영향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준우)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및 6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라북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7%가 증가한 43억4601만 달러 달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10억4258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던 전라북도 수출에서 깜짝 실적을 기록한 수치였다. 2013년 상반기 53억 불 수출 이후로 줄곧 내리막을 기록한 전라북도 수출은 2020년 상반기에는 27억 불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지난해부터 동제품, 농기계, 농약 등의 새로운

수출 품목 강세로 10여년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한 품목은 역시 동제품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88%가 성장한 동제품은 올해 상반기에도 27% 이상 성장하여 3억 9천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전라북도의 대표 수출품목으로 발돋움했다. 이어서 정밀화학원료(33억 7880만 27.3%), 합성수지(33억 5724만 11.0%), 농약(22억 8707만 5.7%), 건설광산기계(12억 8330만 13.0%) 등이 2~5위 수출 품목으로 기록됐다. 10대 수출 품목 중 상승폭이 컸던 품목은 알루미늄(193.418만, 22.9%)과 농기계(8247.424만, 32.3%)

로 나타났다. 알루미늄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연초부터 가격이 급등했고, 농기계는 코로나 이후로 꾸준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 확대와 중국 수출 부진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미국 수출은 농기계(2933.268만, 31.5%)를 중심으로 33.7%가 증가한 8억 6422만 불로 전북의 최대 수출국이 된 반면 중국은 1.2%가 감소한 7억 8944만 불을 기록했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이 된 것은 2006년 상반기 이후로는 약 16년만이다.

보고서에서는 하반기에 수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수출 강세품목인 동제품, 농기계, 건설광산기계 등은 견조한 수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주력 품목인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자동차 등의 성장이 정체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는다. 또한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6월 전북 수출은 1년 7개월만에 하락으로 마감하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지난해 6월에 73%가 증가한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준우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지난 상반기 전북지역 수출실적은 각종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이루어낸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구조 특성상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전북지역은 10억 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이라고 언급했다. "하반기에 중국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다면 연말까지 약 90억 불 수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산물 특별판매전이 28일 롯데마트 전주점에서 실시한 가운데 전북도 김중훈 정무부지사, 전북농협 정재호 본부장 등이 전북농산물 홍보에 동참했다.

전북 우수농산물 “최고”

내달 3일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서 특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전북 청정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28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7일간 전국 롯데마트 123개 매장에서 전북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농산물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해,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 수박, 포도 등 계절농산물을 판매하게 된다. 28일 롯데마트 전주점에서 실시

한 현장 판매행사에는 전북도 김중훈 정무부지사, 전북농협 정재호 본부장, 산지조합법인대표 등 10여 명이 함께 전북농산물 홍보에 동참하며 자리를 빛냈다.

전북농협과 전북도는 앞으로도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철 맞은 신선한 전북농산물을 대형유통매장 및 전북생생장터, 라이프커머스 등 온라인마켓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판촉행사를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에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세부 지원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 통한 업체당 최대 5년, 5,000만 원 지원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까지 4년 분할상환) 중 선택 △금융기관 협의 통한 대출금리 CD금리(91불)+1.7%p 이내(7.27일 기준 4.3%) 운용(분할상환 기준) △지역신보 납부 보증료 0.5%로 고정 등이다.



LX한국토지정보공사가 28일 전주 본사에서 2022년도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LX공사 고객지원처 최소영 대리와 정보보안부 윤승수 주임이 청렴·인권·윤리 실천결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空)의 정신 되새겨야”

〈빌공〉

LX김정렬 사장, 윤리경영 강연... 반부패 서약도

“빌 공(空)자는 수많은 마음의 플랫폼입니다. 어제의 마음이 없고 오늘의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마음의 바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자의 마음자리가 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X한국토지정보공사가 28일 전주 본사에서 2022년도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김정렬 사장이 한자 공의 다양한 뜻을 알기 쉽게 풀어 윤리

경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정렬 사장은 “공(空)의 진정한 뜻은 내 것이 아니라네 데 있다”면서 “공직윤리의 핵심은 내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어 “함께 공(共), 섬길 공(恭)의 정신으로 모두가 지역사회·관련 업계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목 노력하고, 각자가 자신을 섬기고 더 나아가 국민과 직장 동료, 가족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날 워크숍에서는 LX공사 고객지원처 최소영 대리와 정보보안부 윤승수 주임이 청렴·인권·윤리 실천결의를 선언했으며, 청렴 뮤지컬과 이해충돌 방지방법의 이해를 돕는 청렴 특강, 직장 내 괴롭힘과 가정을 주제로 한 예방교육도 이어졌다.

또한 2022 국민참여 LX경영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마련돼 김희중·이효순·이안승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윤상 기자

신협, 'Air Money 체크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 9월 18일까지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오는 9월 18일까지 해외여행 특화 상품 'Air Money 체크카드' 출시 기념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협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Air Money 체크카드' 발급 후 20만원 이상을 결제한 선착순 100인에게 4만원 상당의 국내 국제선 공항 라운지 이용권을 증정하고, 결제구간별로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공항 라운지 이용권과 경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추첨 요건과 경품은 ▲200만원 이상 결제 1인 200만원 여행상품권(하나투어) ▲100만원 이상 결제 5인 로부터청 소가(KG 코드제로 M9) ▲50만원 이상 결제 10인 스마트워치(갤럭시 워치4) ▲10만원 이상 결제 100인 3인용 모바 일상품권 ▲5만원 이상 결제 200인 2인용 모바일상품권 ▲3만원 이상 결제 200인 1인용 Air Money 포인트다.

당첨자는 10월 초 신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결제금액에서 제세공과금, 대학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선불카드·포인트 구입 및 충전 금액, 코레일·SRT 승차권 예매 취소에 따른 수수료 매출은 제외된다.

신협 'Air Money 체크카드'는 국내외 전 가맹점 3만 원 이상 결제 시 Air Money 포인트 0.5% 적립, 결제·현금 인출·잔액조회 해외이용 수수료 면제 등 가격 혜택을 자랑한다. 전월 실적 충족 조건과 포인트 적립 한도 또한 없다. /김윤상 기자

쌀떡볶이 할랄인증 획득... 인도네시아 진출 성공

웅고집영농조합법인

경진원 수출지원 일한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도내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도내 제품에 대한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최대 600만 원까지(인증별 차등지원) 지원해주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쌀떡볶이(소스 포함)의 할랄인증(MUI)을 획득하여 인도네시아 진출에 성공한 도내기업이 있다.

군산에 소재한 한 업체는 할랄인증을 획득해 지난달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향해 초도 물량 20톤 규모로 무궁화떡볶이 소스와 오메탕 소스 분말(무궁화유통 PB상품)을 선적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약 2억7000만 명)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다. 특히 할랄인증(MUI)을 획득해야 현지 식품시장에 안정적으



로 진입할 수 있고,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관련 서류제출은 물론 생산 및 재료 관리과정까지 현장실사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타깃 시장 맞춤형으로 수출을 준비하는데 전력질주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를 초빙해 원료를 포함한 전체 생산 공정을 철저하게 현지 기준에 맞췄으며, 약 2년에 걸친 연구 끝에 현지인 입맛에 맞는 떡볶이 분말 소스 개발과 인증획득에 성공했다.

글로벌 이슬람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할랄식품산업은 1395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어 이번 수출이 10여 명의 무슬림을 공략해 한국 전통

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떡볶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 반응이 폭발적이라 다음 달에 40t 추가 선적 예정이며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15개국 이상에 제품이 수출되고 있어 매년 100만 불 이상 수출을 목표로 끊임없는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웅고집영농조합법인 이기원 대표는 “처음 전통집을 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했을 때 주변의 우려가 높았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해외인증지원과 FTA 관세 혜택을 위한 컨설팅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채무자 신용회복·재기 지원 마련

전북신보, 내달부터 올 연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 이하 '전북신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환경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 마련을 위해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동안 채무분할 상환약정 체결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2배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연 8~15%로 적용되는 연체이자를 채무자에 따라 전액 면제한다. 또한 채무금액에 따라 2~4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분할상환 채무자에 대하여도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전북신보 유용우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조치 기간 동안 손해금 등 채무면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재기지원부(230-3333 '내선전')에 문의하면 친절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고객 건강관리 도와요...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전북은행서 서비스 오픈

라이나생명 건강관리

솔루션 제휴 통해 제공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8일부터 고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미니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JB마이데이터의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라이나생명의 레저상해 미니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관계자는 “헬스케어 서비



스는 과거 진단과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JB뱅크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건강과 자산을 카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3월 라이나생명, 5월 태진그룹과 전략적 업무제휴(MOU)를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JB뱅크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편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메인화면 구축과 사용자 편의성(UX)을 개선했으며, 기존의 자판기 기능을 보다 더 편리하게 바꿨다.

새로 출시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Zone과 라이프 Zone에서는 정책자금 추천 및 전주시 특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향후 생활금융 서비스 확장을 위해 헬스케어 및 소비 분석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김윤상 기자